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2월호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NEWS LETTER February 2024

교내 소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웨스트우드 UMC 캠퍼스에서의 봄 학기 개강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LA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로 이전하는 학교의 변화와 더불어 웨스트우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이하 CST)는 학생들, 특별히 유학생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썼다. 지역 아파트와 일시적인 계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연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CST가 제공한 아파트는 서로 다른 위치에 2 Bedroom, 1 Bedroom, 그리고 Studio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들 모두 학교까지 자동차로 5~10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오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차가 없는 학생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과 주거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환경에 거주하게 된 학생들은 “학교의 도움으로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가 걱정한 것보다 안전하고 이웃들도 좋아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CST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교내 소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학생들,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LA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로 이전하는 학교의 변화와 더불어 웨스트우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이하 CST)는 학생들, 특별히 유학생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썼다. 지역 아파트와 일시적인 계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연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CST가 제공한 아파트는 서로 다른 위치에 2 Bedroom, 1 Bedroom, 그리고 Studio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들 모두 학교까지 자동차로 5~10분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오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차가 없는 학생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은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과 주거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환경에 거주하게 된 학생들은 “학교의 도움으로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가 걱정한 것보다 안전하고 이웃들도 좋아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CST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교내소식

2023년 가을학기 입학생 소감문 (M.Div과정 송영한)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몬트 M.Div 2/6학기 과정을 하고 있는 송영한입니다. 한 학기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이번 학기부터 미국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온라인 수업은 한국에서 듣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5시에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은 부담이긴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에 몸짓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직 언어로만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영어 실력을 잘 이해 해주셨던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마음에 점점 편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에 있어서도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유학에 올랐기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모르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운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알게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낙담하기보다 더 배우는 기회로 생각하여 이겨 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이나 학업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색했던 영어를 써가면서도 배우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족했던 구약 개념을 잡아 주셨던 마빈 스위니 교수님(Marvin Sweeney) 그리고 관심이 많았던 기독교 윤리학의 개념과 적용을 잘 적립하도록 도와주신 그레이스 카오 교수님(Grace Kao)에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영적 실천 수업의 아이자야 영(Aizaiah Yong) 교수님과 요하나 정커 교수님(Yohana Junker)에게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감사드려야 할 것은 이렇게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미국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마도 긴장이나 기대라는 단어를 예상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았습니다. 먼저 긴장의 감정은 신앙 안에서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긴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데, 항상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긴장보다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더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에 관해서는 제가 꿈꾸는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좋은 일을 기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제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운전 손잡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교외 소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 동정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자랑스러운 한인 동문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목회상담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이하 KAPC)에서는 최근 정푸름(Pooreum Clara Chung, Ph.D.) 박사가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에 취임하였다.



(▲ 정푸름 박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인 정 박사는 KAPC의 역사에서 최초로 선출된 여성 회장이다. 이는 한국 목회 상담학계에서의 정 박사에 대한 높은 평가와 지위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푸름 박사는 한국목회상담협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목회상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이 최고 리더로 선

이번 사례는 한국 상담학계의 다양성과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다. 정 박사의 회장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다.

권진숙(Jinsook Kwon, Ph.D.) 박사도 올해 KAPC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 실천신학 조교수로 재직 중인 권 박사는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KAPC의 사무총장으로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 박사의 사무총장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다.



(▲ 권진숙 박사)



(▲ 김성원 박사)

또한, 김성원(Sungwon Kim, Ph.D.) 박사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기독교학회(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의 총무로 선출되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 연구소 소장, 기독교 세계관과 조직 신학 교수, 그리고 교목처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원 박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의 American Academy of Religion(AAR)에 비견되는, 한국기독교학회의 총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목회상담협회와 한국기독교학회에 임원으로 각각 선출된 세 명의 본교 동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한국목회상담협회와 한국기독교학회의 미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레어몬트의 비전과 미션을 지향하는 이들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 목회 상담 분야와 기독교 학술 분야에 더욱 큰 발전과 성장을 기대한다. ㉠



2024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1월 31일 기준

꽃재 교회 (김성복 담임목사)
갈릴리 감리교회 (김영복 담임목사)
황인조 장로
강신욱 목사
이현재 전도사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이종오 부총장
서태원 재단 (서동영 장로)
고계홍 장로
김웅민 목사 (CST 대학원 발전 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목사, 이진순 사모 (벤나이스 연합 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강승학 장로 (정동 제일 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시온 연합감리교회)
김영진 목사 (Trinity UMC & La Palma UMC)
임용빈 장로
나성금란교회 (이석부 담임목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한의준 담임목사)
이신자 권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목사)
한상훈 회장

총액

\$ 98,268

*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kef@cst.edu

www.cst.edu

www.facebook.com/claremontschooloftheology